

## 3. 내가 느낀 것.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강의명은 나를 설레게 했다. 마치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된 오늘. 그런 컴퓨터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게 될 원천 설계도. 추상화(抽象畫)가 겉모습을 모두 제거하고 단순한 점·선·면·색채만으로 표현하듯이, 컴퓨터의 원리, 컴퓨터의 부품들의 잡다한 모습을 제거한 본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너무 설레었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근엄할까?

결론적으로 대단하지 않았다.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컴퓨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었을까. '튜링 기계'의 첫 만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튜링 기계는 몇 개의 부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라한 기계였다. 아니 실체도 없는 설계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 설계도에선 튜링 기계가 주가 아니었다. 단지 괴델의 '기계적인 방식만으론 수학의 모든 사실을 길어 올릴 수 없다'는 증명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 고안한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튜링의 사고 과정을 교수님이 이끄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튜링 기계'는 미학자 '요한 빙켈만'이 말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을 지닌 기계라는 점. 그리고 '튜링은 천재'라는 점.

교수님께서서는 튜링의 천재성이 과장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다. 튜링의 사고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계적'을 '튜링 기계'를 통해 가정하는 대담함, '튜링 기계'를 보편만능 기계로 확장시키는 발상,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 활용, 이후 '멈춤 기계'를 통한 모순 증명까지 정말 하나같이 엄청나게 보였다. 과감함과 창의적인 방법 그리고 응용력까지 천재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튜링의 1935년: 튜링은 과연 천재인가"를 읽고 우려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튜링이 천재고 튜링의 삶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면, 도대체 '나'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튜링에게로 돌아갔다. 튜링이 이론 업적이 아니라 튜링의 삶으로 들어가보고자 했다. 튜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답은 명확했다. 튜링은 한 분야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그것이 지금의 튜링을 만든 것이다.

튜링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반성했다. 노력하는 한 인간은 방황한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대목이다. 방황하지 않은 노력은 진정한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방황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방황하고 싶지 않았다.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어진 대로 공부했다.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늘 내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변하고 싶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더 이상 튜링이 천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창의적'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창의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미 배운 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해보는 것. 튜링이 괴델의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칸토어의 이론을 적용했듯이, 내가 지금 배운 것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배운 것을 다른 곳에 적용해보면 된다. 그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실제로 튜링의 삶을 따라간 시간은 불과 3주 정도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은 시간 동안 튜링의 삶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내 삶은 이미 변화했다. 무엇이든 도전했다. 모든 수업에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물고 늘어졌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했다. 교양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전공 수업에 적용해보고 그 반대로도 시도해보았다. 모든 수업들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이번 에세이의 제목을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라고 적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컴퓨터의 원천과 다양한 논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제는 컴퓨터의 원천을 튜링 기계라고 말할 수 있고, 튜링 기계가 등장한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컴퓨터에 무지했던 내가 컴퓨터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컴퓨터 세계는 또 다른 세계'들'을 열어주었다. 내 삶의 주체가 '나'인 세계, 창의적인 것이 어마어마 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의 세계, 대단한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오게 해준 '세계'.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라는 전공 앞에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 튜링과는 대척점에 있는 전공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위대한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튜링의 삶과 튜링의 고민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그래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싶다. 앞으로 또 어떤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